

## 전문가의 양심과 사회적 책임

### - 새로운 법조양성제도 이대로 좋은가 -

로스쿨제도라는 새로운 법조양성제도가 출범한지 어느덧 3년이나 지나 첫 졸업생이 배출되면서 그에 따른 새로운 국가시험인 첫 변호사 시험이 치러졌다. 시험의 난이도와 합격률 수준을 둘러싼 수년간의 논란을 잠재우듯 89%의 높은 합격률로 마감되어 그 간의 논의가 기우처럼 되고 말았다.

보도에 의하면 1,665명 응시에 1,451명 합격으로 집계되었다니 종전의 국가고시와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큰 대전환이 이루어진 셈이다. 이제 로스쿨 졸업은 곧 변호사자격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게 된 모양이다. 예전의 고시제도가 극히 낮은 합격률로 인하여 수많은 고시낭인이 생겨나고 정상적인 학교교육과도 괴리되는 극단적인 수험체제를 조장하는 사회적 폐해로 비판받아 온 점을 생각하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안정적 배출이라는 점에서 교육 중심의 합리적 체제 발전이라는 긍정적 측면으로 이해될 점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시험출제와 채점과정을 통해 지난 1년간 끊임없이 울려나온 로스쿨 안팎의 우려와 비판에 대하여는 진지하게 돌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특히나 실제 교육과 출제 현장에 투입된 많은 실무가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교육내용의 부실과 실무능력의 불비라는 본질적 문제에 대하여는 법조인의 사회적 기능과 관련하여 실로 심각한 고민이 아닐 수 없다.

흔히들 비유하는 바와 같이 법률전문가인 법조인은 의료전문가인 의사들과 같이 상당 수준의 실무능력이 보장되어야 하는 고도의 전문직인데 자칫 형식적 이론교육으로 정작 실제 임상 실무능력조차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채 선불리 나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의문이 거듭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평소에도 로스쿨교육 내용이 종전의 법과대학교육과 별반 차이가 없는 지극히 원론적인 수준이라 실무능력 배양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며 스스로

## 방 희 선

(現) 동국대학교 법대 교수·변호사

(前) 수원지방법원 판사



고백하고 있는 로스쿨 교수들의 언급에서뿐만 아니라 최근 시험채점에 참여한 실무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 즉 응시생들의 답안 수준이 전반적으로 너무 낮아 과락 수준의 답안이 매우 많았다는 언급에서도 우려의 충분한 근거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응시생들의 합격선이 불과 40점대 초반이라는 결과 보도를 보면 문제의 실상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기도 하다. 객관적인 자격시험의 성격이라면 변리사시험등과 같이 평균 60점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점수라면 그 검증능력에 실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럼에도 로스쿨교육이나 수료생들의 실무능력 배양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공식적으로는 로스쿨의 우수성만을 되뇌는 교수진의 이중적 행태야말로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다. 너무나 졸속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출발한 로스쿨이라면 그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많은 문제점을 기탄없이 드러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다 같이 모색하는 것이 오히려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닐까.

특히나 이웃 일본과 달리 학부의 법학과정을 의도적으로 절연시키고 불과 3년간의 단기교육으로 법리와 실무 양자를 모두 학습시킨다는 비현실적인 접근법이나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계층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어려운 제도로 인한 소외계층의 불균형 등 사회적 문제까지 논란되는 지경이니 말이다.

따라서 이제 다 함께 그간의 여러 문제점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보다 합리적인 올바른 법조제도의 발전을 위한 방안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시대조류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우수한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본연의 목표를 달성함은 물론 국민 누구나 각자의 노력으로 무리 없이 접근하여 법조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 균등의 열린 제도로 운용될 수 있도록 문제점 보완과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